

대만 해외시장동향 [2026년 10월]

'26. 10. 30.(금) / 한국관광공사 타이베이지사

[주요내용 목차]

1. 대만 관광시장 동향

1.1 대만 아웃바운드관광 시장동향

- '26.1~9월 월별 대만 아웃바운드 관광객수
- '26.1~9월 아웃바운드 목적지별 대만 관광객수
- '26.1~9월 대만 아웃바운드 동향

1.2 대만 인바운드관광 시장동향

- '26.1~9월 방대만 인바운드 관광객수
- '26.1~9월 주요국가 방대만 관광객수
- '26.1~9월 대만 인바운드 동향

1.3 대만 기타 관광시장 동향

[대만 인바운드 시장] △ (유치동향) 1~3분기 인바운드 관광객 수 617만 5천 명, 1천만 목표 불투명, △ (동포유치동향) 대만 및 중국 국경절 특수, 동포 대만 방문 증가, △ (관광서) 재방문객 대상 NT\$5,000 지원금 지급 등 외래객 유치 마케팅 확대

[대만 아웃바운드 시장(일반동향 및 경쟁국 동향)] △ (일반동향) 대만인, 9월 일본 방문 13% 증가, 3분기 일본소비 1위, △ (상품동향) 한국과 일본 단품상품 구매 20% 증가, 특히 한국 급성장, △ (크루즈) 대만 크루즈 관광 강한 회복세, 팬데믹 이전 승객수 넘어서, △ (양안관광) 여행업계, 중국 대륙 단체여행 금지 허점 악용 성업 중, △ (경쟁국_일본) '일본관광상품박람회' 타이베이역서 개최, △ (경쟁국_태국) 태국, 외국인 대상 출국세와 입국세 도입 검토, △ (경쟁국_유럽) 반도체 산업이 항공노선 탑승률 올려, 프라하 노선 인기, △ (기타 항공동향) 대만 국적기, 일반 지방, 인도 및 말레이시아 운항 확대

[대만 관광산업(국내관광포함)] △ (국내여행) 10월 국경절 및 광복절 연휴 기간 국내여행 급증, △ (지방정부) 가오슝, 3년 연속 국내 관광객 만족도 조사 1위, △ (정책동향①) 평일 숙박 보조금 9.1~7일 일주일 간 26% 사용, △ (정책동향②) 관광 가이드 및 여행 인솔자 자격 요건 완화 개정안 마련, △ (정책동향③) 교통부, NT\$572억 투자, 항만 인프라 개선사업 추진, △ (항공산업) 공항이용료 등 항공 관련 비용 인상

2. 방한관광 현황 및 전망

2.1 방한 대만관광객수 추이 및 특징

- '26.1~9월 방한 대만관광객수/ - 입국(공항) 루트별 대만관광객수 및 비중

2.2 방한 항공동향

- '26.1~9월 대만-한국 노선 운항편수 및 '25년 대비 증가율
- '26.9월 현재 주요 노선 운항편수 및 주요 분석

2.3 향후 전망: 방한 대만 관광객 최초 200만 돌파, 한국 성장률 연간 1위 확정적

3. 타이베이지사 '26.10월 현재 추진 주요사업 및 동향

1. 대만 관광시장 동향

1.1 대만 아웃바운드관광 시장동향

○ 2026.1~9월 월별 대만 아웃바운드 관광객수 (단위 : 명)

구 분	'26년(a)	'25년(b)	'24년	a/b 증가율
1월	1,765,274	1,613,482	1,281,751	9.4%
2월	1,828,010	1,415,766	1,389,474	29.1%
3월	1,771,921	1,463,304	1,321,971	21.1%
4월	1,755,897	1,475,009	1,347,523	19.0%
5월	1,703,031	1,525,029	1,360,781	11.7%
6월	1,830,537	1,648,672	1,566,852	11.0%
7월	1,997,532	1,733,458	1,572,801	15.2%
8월	1,880,149	1,735,942	1,547,087	8.3%
9월	1,723,181	1,498,878	1,364,271	15.0%
1~9월	16,255,532	14,109,540	12,752,511	15.2%
10월		1,735,534	1,409,979	
11월		1,535,165	1,360,810	
12월		1,564,197	1,326,383	
계		18,944,436	16,849,683	

[출처] 대만 관광서 통계자료 정리 (※10.30 현재 '26.9월 데이터까지 발표)

○ 2026.1-9월 월별 아웃바운드 목적지별 대만 관광객수 (단위 : 명)

구 분	일본	중국	한국	베트남	태국	홍콩
1월 (비중)	687,698 (39.0%)	284,532 (16.1%)	163,616 (9.3%)	97,950 (5.5%)	102,407 (5.8%)	140,151 (7.9%)
2월 (비중)	685,066 (37.5%)	249,539 (13.7%)	180,547 (9.9%)	98,964 (5.4%)	113,774 (6.2%)	165,358 (9.0%)
3월 (비중)	640,025 (36.1%)	334,387 (18.9%)	191,864 (10.8%)	101,612 (5.7%)	86,256 (4.9%)	143,377 (8.1%)
4월 (비중)	641,304 (36.5%)	320,587 (18.2%)	188,206 (10.7%)	107,069 (6.1%)	81,037 (4.6%)	145,462 (8.3%)
5월 (비중)	612,475 (36.0%)	330,614 (19.4%)	188,644 (11.1%)	95,186 (5.6%)	73,824 (4.3%)	138,709 (8.1%)
6월 (비중)	666,434 (36.4%)	327,402 (17.9%)	219,477 (12.0%)	96,220 (5.3%)	85,937 (4.7%)	139,453 (7.6%)
7월 (비중)	741,083 (37.1%)	319,827 (16.0%)	247,477 (12.4%)	109,116 (5.5%)	102,452 (5.1%)	147,592 (7.4%)
8월 (비중)	660,800 (35.1%)	325,163 (17.3%)	243,502 (13.0%)	99,573 (5.3%)	100,514 (5.3%)	137,414 (7.3%)
9월 (비중)	590,364 (34.3%)	306,598 (17.8%)	201,904 (11.7%)	102,657 (6.0%)	86,289 (5.0%)	131,853 (7.7%)
(a) '26.1-9월 (비중)	5,925,245 (36.5%)	2,798,649 (17.2%)	1,825,237 (11.2%)	908,347 (5.6%)	832,490 (5.1%)	1,289,369 (7.9%)

(b)'25 비중*	35.5%	17.1%	9.7%	6.4%	5.4%	8.6%
(c)'24 비중*	35.6%	16.4%	8.5%	7.5%	6.7%	7.1%
(d)'23 비중*	35.8%	14.9%	8.1%	7.2%	6.6%	6.3%

[출처] 대만 관광서 통계자료 정리/ *각 년도 대만 아웃바운드에서 차지하는 비중

○ 2026.1-9월 대만 아웃바운드 동향

- 대만의 9월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는 1,723,181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5.0% 증가하였음. 1~9월 누계로는 16,255,532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5.2% 증가하였음. 다만 전월 대비해서는 8.3% 감소하였는데, 이는 대만 정부의 국내관광 활성화 사업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 4분기 지속 동향 파악이 필요함
- 국가별로는 일본, 중국, 한국, 홍콩, 베트남, 태국 순으로 이어지는 인기 해외목적지 순위는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아웃바운드 목적지로 한국을 선택하는 비중은 전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연중(1~9월)은 11.2%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 9월 유의미한 증가 추세를 보인 국가는 중국임. 9월은 연중(1~9월) 아웃바운드 점유율은 17.2%를 상회하는 17.8%로 양안관계 긴장 속에서도 증가하였음. 이는 중추절 연휴(9. 25.~9. 27.) 계기 가족·친지 방문 증가 영향으로 추정됨

1.2 대만 인바운드관광 시장동향

○ 2026.1~9월 월별 방대만 인바운드 관광객수

(단위 : 명)

구 분	'26년(a)	'25년(b)	'24년	a/b 증가율
1월	723,375	651,078	589,961	11.1%
2월	625,608	699,158	648,348	-10.5%
3월	883,061	778,576	811,608	13.4%
4월	758,613	751,149	610,146	1.0%
5월	692,784	710,933	581,748	-2.6%
6월	611,148	606,346	571,510	0.8%
7월	607,534	586,226	539,454	3.6%
8월	662,735	673,102	616,922	-1.5%
9월	611,755	601,339	575,455	1.7%
1~9월	6,176,613	6,057,907	5,545,152	2.0%
10월		757,860	661,115	
11월		812,236	747,800	
12월		946,544	903,619	
계		8,574,547	7,857,686	

[출처] 대만 관광서 통계자료 정리 (※10.30 현재 '26.9월 데이터까지 발표)

○ 2026.1~9월 월별 주요국가 방대만 관광객수

(단위 : 명)

구 분	홍콩/마카오	일본	한국	미국	베트남
1월 (비중)	81,266 (11.2%)	120,310 (16.6%)	130,755 (18.1%)	56,056 (7.7%)	31,044 (4.3%)
2월 (비중)	90,056 (9.3%)	70,337 (11.2%)	96,313 (15.4%)	50,923 (8.1%)	41,169 (6.6%)
3월 (비중)	98,865 (11.2%)	166,393 (18.8%)	94,334 (10.7%)	79,914 (9.0%)	57,327 (6.5%)
4월 (비중)	116,758 (15.4%)	109,235 (14.4%)	82,621 (10.9%)	72,374 (9.5%)	36,859 (4.9%)
5월 (비중)	93,219 (13.5%)	117,617 (17.0%)	78,315 (11.3%)	60,252 (8.7%)	34,768 (5.0%)
6월 (비중)	90,731 (14.8%)	96,607 (15.8%)	43,437 (7.1%)	74,612 (12.2%)	39,958 (6.5%)
7월 (비중)	122,193 (20.1%)	80,557 (13.3%)	46,322 (7.6%)	61,099 (10.1%)	41,261 (6.8%)
8월 (비중)	137,560 (20.8%)	116,582 (17.6%)	50,973 (7.7%)	49,678 (7.5%)	43,599 (6.6%)
9월 (비중)	74,686 (12.2%)	135,499 (22.1%)	60,724 (9.9%)	42,546 (7.0%)	37,753 (6.2%)
(a)'26.1~9월 (비중)	905,334 (14.7%)	1,013,137 (16.4%)	683,794 (11.1%)	547,453 (8.9%)	363,738 (5.9%)
(a)'25 비중*	15.3%	17.3%	11.9%	8.3%	5.0%
(a)'24 비중*	16.7%	16.8%	12.8%	8.3%	4.7%
(a)'23 비중*	18.5%	14.3%	11.5%	8.2%	5.9%
구 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중국
1월 (비중)	28,113 (3.9%)	33,064 (4.6%)	33,365 (4.6%)	68,517 (9.5%)	46,690 (6.5%)
2월 (비중)	27,312 (4.4%)	21,584 (3.5%)	26,968 (4.3%)	61,602 (9.8%)	58,062 (9.3%)
3월 (비중)	42,966 (4.9%)	47,795 (5.4%)	46,138 (5.2%)	79,900 (9.0%)	46,864 (5.3%)
4월 (비중)	30,013 (4.0%)	38,974 (5.1%)	43,936 (5.8%)	72,629 (9.6%)	49,794 (6.6%)
5월 (비중)	32,022 (4.6%)	36,084 (5.2%)	35,375 (5.1%)	62,800 (9.1%)	58,655 (8.5%)
6월 (비중)	21,925 (3.6%)	31,240 (5.1%)	26,444 (4.3%)	55,379 (9.1%)	50,114 (8.2%)
7월 (비중)	19,071 (3.1%)	21,173 (3.5%)	29,041 (4.8%)	49,189 (8.1%)	58,869 (9.7%)
8월 (비중)	20,991 (3.2%)	19,410 (3.2%)	22,992 (3.5%)	45,904 (6.9%)	67,303 (10.2%)
9월 (비중)	22,141 (3.6%)	24,701 (4.0%)	25,987 (4.2%)	47,572 (7.8%)	50,561 (8.3%)
(a)'26.1~9월 (비중)	244,554 (4.0%)	274,025 (4.4%)	290,246 (4.7%)	543,492 (8.8%)	486,912 (7.9%)

(a)'25 비중*	4.5%	5.2%	4.8%	7.3%	7.4%
(a)'24 비중*	5.5%	5.7%	5.1%	5.9%	5.6%
(a)'23 비중*	6.7%	7.2%	6.1%	5.9%	3.5%

[출처] 대만 관광서 통계자료 정리/ *각 년도 대만 인바운드에서 차지하는 비중

○ 2026.1-9월 대만 인바운드 동향

- 대만의 9월 인바운드 관광객 수는 611,755명으로 전월 대비 7.7%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기(601,339명) 대비 1.7% 증가하였음. 1~9월 누적치는 6,176,613명으로 전년 동기(6,057,907명) 대비 2.0% 증가하여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년도 성장세 대비 둔화된 상황임
- 9월 방대만 관광객이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으로 135,499명이었으며 22.1%의 비중을 차지하였음. 1~9월 누적 관광객 역시 일본이 1,013,137명으로 16.4%를 차지하여 1위로 나타남
- 방대만 한국인은 9월 60,724명으로 전월 대비 19.1% 증가하고 그 비중도 2.2%p 증가하였음. 혹서기(8월) 경과 후 추석 연휴(9. 24.~9. 27.) 활용 단거리 관광지인 대만 여행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또한, 원화 대비 대만 달러 약세로 체감 여행경비가 감소한 것도 영향으로 보임

1.3 대만 기타 관광시장 동향

대만 인바운드시장

○ (유치동향) 1~3분기 인바운드관광객수 617만 5천명, 1천만 목표 불투명

- 올해 9월까지 대만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는 617만 5천명, 지난해 동기 대비 소폭 증가(1.93%)했으나 연간 목표인 1천만 명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
- 관광서와 행정원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위해 10월부터 재방문객 및 단체 대상 인센티브 프로그램(재방문객 추천통해 NT\$5,000, 한화 약 20만원, 인센티브 증정 등)을 운영하고, 각 부처와 협력하여 스포츠 행사, 콘서트, 문화 교류 등 국제 이벤트 개최 및 추가 인센티브 제공(예, 경제부 국제회의 및 전시회 참가 외국인 대상 NT\$2,000 상당 ‘국제전시 관광 소비 카드’ 제공)

○ (동포유치동향) 대만 및 중국 국경절 특수, 동포 대만 방문 증가

- 대만 국경절(10.10) 기념행사 참가를 위해 전세계 51개국에서 4천명 이상의 해외 동포가 대만 방문. 대만 해외교민사무위원회는 30개 여행사를 통해 155개 여행 일정 기획, 여행사 대상 참가자 1인당 최대 NT\$3,000 인센티브 제공
- 중국 국경절 연휴(10.1~10.10) 기간 진먼을 방문한 중국 본토 관광객은 총 8,596명이며, 특히 연휴 첫 3일간 방문객이 5천명 이상 기록. 본토 관광객들은 진먼 주요 상업지구에서 홈스테이, 소형전기차 렌탈, 지역기념품 구입 등의 활동을 즐겼으며, 95%가 개별여행객이었고, 가족단위나 젊은층이 많았음
- 한편, 진먼현(縣)은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0.17일 ‘건기행사’ 개최, 중국 푸젠성에서 320명 유치

○ (관광서) 재방문객 대상 NT\$5,000 지원금 지급 등 외래객 유치 마케팅 확대

- (재방문객 여행지원금 제도 론칭) 관광서가 재방문 외국인 개별관광객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행지원금 NT\$5,000 추첨 지급(동행자 포함 최대 NT\$8,000)’ 행사 론칭 단 7일만에 5.3만명 등록, 주요 참가국은 일본, 홍콩, 마카오, 한국임. 당첨자는 세븐일레븐 매장에서 선택한 소비카드에 해당 금액을 적립하여, 교통, 관광지입장, 상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 (업계·인플루언서 팸투어) 관광서, 일본/홍콩/말레이시아 인플루언서를 초청, “남부 타이완에서 놀라운 경험을!” 이라는 주제로 윈린-자이-타이난해안 등 남부 지역 팸투어를 실시하고 항공사 및 OTA와 협업하여 다양한 연관 프로모션 추진
- (아르헨티나) 관광서, 제2회 중남미 국제관광박람회(FIT, 9.26~29) 참가, 음식, 차문화, 서예, 자연 등의 테마로 관광홍보관 운영. 특히, 아르헨티나 거주 젊은 대만인들로 구성된 FASCA그룹 초청, 대만관광홍보
- (일본) △관광서, 65개 기관 97명 대표와 함께 일본 최대 여행박람회 ‘Tourism EXPO Japan(9.24~27)’ 참가, 대만관광 홍보관 운영 및 B2B 행사 개최. 행사를 통해 관광서는 ‘재방문객 대상 최대 NT\$8,000 할인 혜택 프로모션’ 및 충분한 항공노선을 연계한 남-북 연계 관광 등을 여행방식을 홍보 △관광서는 또한 서일본 주요 여행

사 관계자, 인플루언서, 항공사 관계자 등을 핑둥(屏東)으로 초청, 남부지역의 관광 매력을 소개(10.16~20)

- (싱가포르) 관광서,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ITB Asia 2026 참가 (10.21~23), 대만관 운영. 특히 금번 행사는 대만 국가관 외 타이베이시 및 가오슝시도 도시관을 운영, 지역별 관광자원과 MICE 분야 강점을 해외 바이어 대상 소개

대만 아웃바운드시장(일반동향 및 경쟁국 동향)

○ (일반동향) 대만인, 9월 일본방문 13% 증가, 3분기 일본소비 1위

- (방일인원) JNTO 통계에 따르면, 9월 중국인 관광객 44.5% 급감으로 일본 전체 인바운드 관광객 수 5% 감소, 반면 대만과 한국인 관광객은 각각 13%와 25.6% 증가
- (소비동향) 7~9월 기간 외국인 관광객 총 지출액은 약 2.2조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 국적별로는 대만 관광객이 전체 외국인 소비의 17.3%를 차지해 1위 기록
- (여행행태) 한편, 일본 라쿠텐트래블에 의하면 대만인들의 일본여행 행태가 변화되고 있는데, 관광객의 67%가 2, 3선 도시와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을 방문하고, 1인 또는 2인 여행이 각각 16%와 52%로 증가 추세로 소규모화되어 가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여행예산은 NT\$4만(한화 약 165만원), 그 중 절반 정도를 숙박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짐

○ (상품동향) 한국과 일본 단풍상품 구매 20% 증가, 특히 한국 급성장

- 대만 관광업계에 따르면 올해 일본과 한국의 단풍 테마 여행상품 판매량은 지난해 대비 20% 증가. 일본의 높은 수요는 여전하고, 올해 들어 한국이 안정적인 항공 공급과 높은 가성비로 특히 가족여행을 중심으로 전체 노선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 기록중
- 라이온트래블의 단풍상품 예약 지난해 대비 20% 증가, 일본과 한국이 각 1위와 2위 차지: 콜라투어는 단풍상품 조기 예약 분위기로, 인기 상품의 경우 2~3개월 전 이미 판매 완료됐으며 ezTravel의 경우 도쿄, 오사카, 서울 중심 항공권 판매량 17% 증가

○ (크루즈) 대만 크루즈 관광 강한 회복세, 팬데믹 이전 승객수 넘어서

- 팬데믹 이전 대만의 크루즈 관광 시장은 세계 11위 규모, 아시아에선 중국 대륙에 이어 2위 차지했으나, 2025년 세계 13위로 하락. 최근 교통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만의 크루즈 운항은 567회, 관광객은 115.7만 명으로 팬데믹 이전의 105.5만 명을 넘어섬. 그 중 크루즈 기항은 39% 증가했으며, 외국인 탑승객 비중은 58%로 상승, Fly Cruise 이용 관광객은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만 크루즈관광산업의 회복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업계는 분석

○ (양안관광) 여행업계, 중국 대륙 단체여행 금지 허점 악용 성업 중

- 지난 '20년 팬데믹을 계기로 대만 정부는 여행사의 여행상품 판매 금지, 당초 '24년 해제 계획이었으나, 중국정부의 대만 여행금지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개별여행은 허용하되 단체여행 금지 시행 상황
- 대만 여행업계는 '문화 탐방'이나 '단체 개별여행'이라는 독특한 테마와 방식으로 우회, SNS 채널을 통해 중국 단체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모객후 중국여행사에게 단체를 넘기는 형태가 대부분. 이 경우 소비자와 판매상 간 분쟁이 생겨도 법적 책임과 보상의 주체가 없어 모든 피해는 소비자가 지게 되는 상황이라며 언론은 우려
- 한편, 학계는 대만인의 중국 여행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순수한 시장 수요이며,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소비자의 피해만 초래, 정책이 조속히 시장 메커니즘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함

○ (경쟁국_일본) '일본관광상품박람회(日本観光物産博覧會)' 타이베이역서 개최

- 일본 지자체, 관광협회, 기업 등 29개 기관이 연합 개최하는 제 14회 '대만 일본관광상품박람회'가 대만 타이베이역에서 개최(10.21~22). 행사에선 지역 관광정보, 지역 특산품 및 기념품 홍보와 판매가 이루어지며,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 한편, 행사에 참가한 '구마모토현'은 최근 대만의 구마모토 지진 지원에 대한 특별한 감사 이벤트도 실시

○ (경쟁국_태국) 태국, 외국인 대상 출국세와 입국세 도입 검토

- 태국정부, 관광 수입 증대를 위해 외국인 대상 입출국 시 세금 부과 예정, 제도 시행 시 20년만에 제도 부활. 외국인은 출국세 1천바트(USD30)와 입

국세 450바트를 내국인 대상으로는 출국세 1천바트 부과

- 10.10일 기준 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는 약 2400만 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 감소, 팬데믹 이전 4천만 명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에서 출입국세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경쟁국_유럽) 반도체 산업이 항공노선 탑승률 올려, 프라하 노선 인기

- 올해 8월부터 운항을 개시한 스타릭스 타이베이-프라하 노선이 체코의 반도체 공급망 기지화(대만 반도체 기업의 인력 및 연구 기지화)로 인한 비즈니스 관광객 증대로 성/비수기 모두 80% 이상의 탑승률을 기록 중. 실제 체코관광청은 최근 8월 1개월간 체코 방문 대만 관광객 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21.07% 증가를 발표한 바 있음

○ (기타 항공동향) 대만 국적기, 일본 지방, 인도 및 말레이시아 운항 확대

- (스타릭스) △타이중-삿포로 신규 취항(주 5회, 10.2) △타이중-나고야 신규 취항(주 4회, 10.25~) △타이베이-쿠알라룸푸르(매일, 10.5~)
- (에바항공) 타오위안-델리 직항 복항(주 5회, 12.1~)
- (타이거에어) 타이베이-일본 고치(주 2회, 3.28~)
- (비엠텐, 베트남 국적기) 타이난-하노이 신규 취항(주 4회, 10.25~)

대만 관광산업(국내관광포함)

○ (국내여행) 10월 국경절 및 광복절 연휴 기간 국내여행 급증

- 대만 국경절 연휴(10.9~11) 기간 국내 호텔 평균 객실 점유율 61.16% 기록, 주요 관광도시 중 타이베이가 76.49%로 1위, 렌장현 2위(76.19%), 타이둥 3위(65.53%) 기록
- 이어지는 광복절 연휴(10.24~26) 기간의 경우에도 전국 평균 60.31%를 기록했으며, 렌장현이 78%로 1위, 타이난시와 타이베이가 각각 65% 이상 점유율로 2, 3위 차지
- 지난해 국경절 연휴 기간 국내 평균 호텔 점유율은 50%에 불과했으며 올해 들어 정부 정책사업으로 국내관광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지방정부) 가오슝, 3년 연속 국내 관광객 만족도 조사 1위

- 팬데믹 이후 관광산업에서 가장 눈부신 성장을 보이고 있는 대만 도시는 바로 가오슝. 글로벌 셀럽의 콘서트 개최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겨울 놀이공원 운영으로 가족 단위 관광객 증가, 명확한 두 계층 확보로

숙박 수입, 외식 수입, 외국인 관광객 수, 외국인 관광객 지출 4대 분야에서 전국 주요 도시 중 1위 기록

○ (정책동향①) 평일 숙박 보조금 9.1~7일 일주일 간 26% 사용

- 관광서가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평일 숙박 보조금 제도’ 사용률이 시행 1주일 만에 26% 기록, 사용이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화련, 타이둥, 이란, 핑둥, 타이난이었으며, 당초 11.30일까지 총 NT\$15.3억(한화 625억) 예산이 투입되는 등 사업은 예산 소진으로 조기 중단이 예상되고 있음

○ (정책동향②) 관광 가이드 및 여행 인솔자 자격 요건 완화 개정안 마련

- 관광서는 관광가이드 및 여행 인솔자 확대를 위해 자격증 시업 응시자격 요건 완화 개정안 마련. 고등학교 졸업장 필수 폐지, 대학 재학중 혹은 졸업 예정자도 응시 가능
- 9월 기준 대만에는 총 49,345명 가이드가 활동, 중국어(3만6천명), 영어(8천명), 일어(4천명) 순이며, 인솔자는 74,724명, 영어(4만명), 중국어(2만8천명), 일어(8천명)이 활동 중임

○ (정책동향③) 교통부, NT\$572억 투자, 항만 인프라 개선사업 추진

- 국가발전위원회는 교통부 제출 <상업항만 종합 개발 계획> 승인. 총 투자액은 NT\$572억 6500만(한화 2조 3천억)에 달하며, 계획 의거 항만의 스마트 기술 적용, 친환경 시설 전환, 극한 기후 대응력 강화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외곽 섬 지역 해상 운송 인프라 개선 및 지역 주민 생계와 관광산업 지원을 목표로 사업 추진

○ (항공산업) 공항이용료 등 항공 관련 비용 인상

- 대만 교통부의 공항이용료 인상 시행(9.1~), 출국 여객 기준 기존 NT\$500에서 NT\$750으로 인상. 2028.9.1부터 NT\$1,000으로 추가 인상 예정
- 대만 국적 항공사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상(9.7~), 단거리 노선은 US\$30에서 US\$32.5, 장거리 노선은 US\$78에서 US\$84.5로 인상. 국제항공유 가격 상승에 따른 조치로, 항공권 구매 비용 부담 확대
- 중화항공 국제선 발권 서비스 수수료 인상(9.22~), US\$30에서 US\$33으로 조정. 스타릭스항공도 10.7부터 발권 수수료를 US\$30에서 US\$33으로 인상 예정이며, 타이거에어 타이완은 9.1부터 발권 수수료를 비수기 NT\$350, 성수기 NT\$450으로 조정

2. 방한관광 현황 및 전망

2.1 방한 대만관광객수 추이 및 특징

○ 2026.1~9월 월별 방한 대만관광객수

(단위 : 명)

구 분	'26년(a)	'25년(b)	a/b 증가율	'26년 전체 방한객수(c)	a/c 비중
1월	166,779	135,434	23.1%	1,265,658	13.2%
2월	183,753	120,015	53.1%	1,431,472	12.8%
3월	192,138	140,017	37.2%	2,045,992	9.4%
4월	192,854	151,613	27.2%	2,027,860	9.5%
5월	191,795	150,272	27.6%	1,945,809	9.9%
6월	223,127	164,885	35.3%	1,993,128	11.2%
7월	260,532	199,280	30.7%	2,093,223	12.4%
8월	245,277	191,565	28.0%	2,245,293	10.9%
9월	208,113	154,992	34.3%	2,062,042	10.1%
1~9월	1,864,368	1,408,073	32.4%	17,110,477	10.9%
10월		161,049			
11월		158,374			
12월		163,918			
계		1,891,414			

[출처] 한국관광 데이터랩

※ 2026.1~9월 한국-대만 방문객수

구 분	대만→한국	한국→대만	계
1월	166,779	130,755	297,534
2월	183,753	96,313	280,066
3월	192,138	94,334	286,472
4월	192,854	82,621	275,475
5월	191,795	78,315	270,110
6월	223,127	43,437	266,564
7월	260,532	46,322	306,854
8월	245,277	50,973	296,250
9월	208,113	60,724	268,837
1~9월	1,864,368	683,794	2,548,162

○ 입국(공항) 루트별 대만관광객수 및 비중

(단위 : 명)

구 분	전체	인천	김해	김포	제주	대구	청주
'26.1월	166,779	78,932 (47.3%)	44,852 (26.9%)	12,046 (7.2%)	23,820 (14.3%)	2,074 (1.2%)	4,812 (2.9%)
'26.2월	183,753	82,277 (44.8%)	52,909 (28.8%)	13,299 (7.2%)	24,158 (13.1%)	3,796 (2.1%)	6,683 (3.6%)
'26.3월	192,138	76,238 (39.7%)	62,197 (32.4%)	13,299 (6.9%)	26,152 (13.6%)	3,141 (1.6%)	4,445 (2.3%)
'26.4월	192,854	78,191 (40.5%)	67,222 (34.9%)	12,855 (6.7%)	25,096 (13.0%)	3,428 (1.8%)	4,042 (2.1%)
'26.5월	191,795	73,857 (38.5%)	68,371 (35.6%)	13,227 (6.9%)	26,045 (13.6%)	3,081 (1.6%)	3,308 (1.7%)
'26.6월	223,127	85,726 (38.4%)	81,361 (36.5%)	14,681 (6.6%)	27,514 (12.3%)	3,926 (1.8%)	4,410 (2.0%)
'26.7월	260,532	94,449 (36.3%)	96,119 (36.9%)	14,696 (5.6%)	26,626 (10.2%)	3,720 (1.4%)	5,139 (2.0%)
'26.8월	245,277	90,863 (37.0%)	94,956 (38.7%)	15,408 (6.3%)	28,046 (11.4%)	3,827 (1.6%)	5,774 (2.4%)
'26.9월	208,113	72,574 (34.9%)	84,746 (40.7%)	12,127 (5.8%)	26,856 (12.9%)	3,062 (1.5%)	4,511 (2.2%)
'26.1~9월 누계	1,864,368	733,107 (39.3%)	652,733 (35.0%)	121,228 (6.5%)	234,313 (12.6%)	30,055 (1.6%)	43,124 (2.3%)
'25년 전체**	1,891,414	884,121 (46.7%)	509,136 (26.9%)	144,491 (7.6%)	211,121 (11.2%)	65,143 (3.4%)	41,385 (2.2%)
'24년 전체*	1,473,908	722,453 (49.0%)	361,863 (24.6%)	123,098 (8.4%)	133,256 (9.0%)	73,467 (5.0%)	27,991 (1.9%)

[출처] 한국관광 데이터랩/ [참고] ()은 전체 입국루트에서 차지하는 비중

* (무안) 591명, (양양) 4명 ** (무안) 0명, (양양) 2명

○ 주요 분석

- 2026년 9월 방한 대만 관광객 수는 208,113명으로 전년 동기(154,992명) 대비 34.3% 증가하였음. 1~9월 누적 방한객은 1,864,368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2.4% 증가하였음
- 2026. 9월 방한 대만 관광객 수의 각 공항별 이용 비중은 인천 34.9%, 김해 40.7%, 김포 5.8%, 제주 12.9%, 대구 1.5%, 청주 2.2%로 나타남. 항공 공급 증가 및 부산 지역 관광콘텐츠의 인기로 김해공항 입국 비중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1~9월 누계로 보면 기존 제1입국관문인 인천공항과의 비중은 4.3%p 차이로 연말까지 그 격차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됨
- 또한 1~9월 지방공항별 국적별 입국객을 살펴보면, 대만 관광객은 3개 지방공항 전체 입국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김해 38.7%, 대구 31.8%, 청주 37.4%)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시장 역할을 하고 있음

2.2 방한 항공동향

○ '26.1~9월 대만-한국 노선 운항편수 및 '25년 대비 증가율 (단위 : 편)

구 분	'26년(a)	'25년(b)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전월대비 증가율
1월	2,837	2,486	14.1%	3.4%
2월	2,654	2,215	19.8%	-6.5%
3월	2,902	2,381	21.9%	9.3%
4월	2,871	2,274	26.2%	-1.1%
5월	2,962	2,377	24.6%	3.2%
6월	2,794	2,227	25.5%	-5.7%
7월	2,898	2,440	18.8%	3.7%
8월	3,006	2,460	22.2%	3.7%
9월	3,066	2,285	34.2%	2.0%
1~9월	25,990	21,145	22.9%	-
10월		2,622		
11월		2,628		
12월		2,745		
계		29,140		

[출처] 한국항공협회 항공포털/ [기준] 정기+부정기, 출발편+도착편

○ '26.9월 현재 주요 노선 운항편수

(단위 : 편)

구 분	'26.9월	'26.8월	'26.7월	'26.6월
타이베이-인천	750(4.7%)	716 (6.1%)	675 (-4.9%)	710 (-7.1%)
타이베이-김해	960(6.0%)	906 (0.7%)	900 (16.9%)	770 (-1.2%)
타이베이-대구	60(-3.2%)	62 (6.9%)	58 (-3.3%)	60 (-3.2%)
타이베이-제주	243(-0.4%)	244 (2.5%)	238 (-0.8%)	240 (-1.2%)
타이베이-청주	111(-7.5%)	120 (30.4%)	92 (0.0%)	92 (-25.8%)
타이베이(송산)-김포	120(-3.2%)	124 (3.3%)	120 (0.0%)	120 (-3.2%)
가오슝-인천	180(-3.2%)	186 (2.8%)	181 (0.0%)	181 (0.6%)
가오슝-김해	180(-3.2%)	186 (2.8%)	181 (1.1%)	179 (-3.8%)
가오슝-김포	92(-6.1%)	98 (6.5%)	92 (-2.1%)	94 (-6.0%)
가오슝-제주	69(-4.2%)	72 (7.5%)	67 (-1.5%)	68 (-4.2%)
타이중-인천	180(-3.2%)	186 (2.2%)	182 (2.2%)	178 (-28.2%)
타이중-제주	17(-5.6%)	18 (12.5%)	16 (0.0%)	16 (-15.8%)
타이중-김해	104(18.2%)	88 (12.8%)	78 (11.4%)	70 (59.1%)
화롄-인천	0(-)	0 (-100%)	18 (12.5%)	16 (-11.1%)

[출처] 한국항공협회 항공포털/ [기준] 정기+부정기, 출발편+도착편

[참고] ()는 전월 대비 증가율

○ 주요 분석

- **(전체 운항 규모 확대 지속, 월 3,000편 이상 유지)** 2026년 9월 한-대만 운항편수는 3,066편으로 전년 동기(2,285편) 대비 34.2%(781편) 증가하였으며, 전월(3,006편) 대비로도 2.0%(60편) 증가함. 2026년 1~9월 누적 운항편수는 25,990편으로 전년 동기(21,145편) 대비 22.9%(4,845편) 증가세를 기록함. 8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월 3,000편을 상회하며, 하계 성수기 이후에도 한-대만 간 항공 공급 확대 기조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노선 증가세 지속)** 타이베이-인천 노선은 750편으로 전월 대비 4.7%(34편) 증가하며 증가세를 이어갔고, 타이베이-김해 노선은 960편으로 전월(906편) 대비 6.0%(54편) 증가하며 주요 노선 중 가장 큰 운항 규모를 기록함. 타이베이(송산)-김포 노선은 120편으로 전월(124편) 대비 3.2%(4편) 감소했으나 전반적으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 타이베이-인천 및 타이베이-김해 노선의 증가에는 에바항공 등 항공사별 추가편 운항과 연휴 대응 한시 증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됨
- **(김해 중심 항공 공급 확대 및 노선별 차별화)** 타이베이-김해 노선은 전월 대비 6.0% 증가한 960편을 기록했으며, 타이중-김해 노선도 104편으로 전월(88편) 대비 18.2%(16편) 증가해 주요 노선 중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이는 타이베이-김해 노선의 연휴 대응 한시 증편과 타이중-김해 노선의 운항계획 변화 등 항공사별 공급 조정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반면 가오슝-김해 노선은 180편으로 전월(186편) 대비 3.2%(6편) 감소해 김해 연계 노선 내에서도 상이한 흐름이 나타남
- **(일부 지방공항 노선 조정세 및 공급 변화)** 타이베이-청주 노선은 111편으로 전월(120편) 대비 7.5%(9편) 감소했으며, 타이베이-대구 노선은 60편으로 전월(62편) 대비 3.2%(2편) 감소함. 제주 노선의 경우 타이베이-제주는 243편으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가오슝-제주는 69편으로 전월(72편) 대비 4.2%(3편), 타이중-제주는 17편으로 전월(18편) 대비 5.6%(1편) 감소함. 이처럼 전체 운항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지방공항 노선은 노선별로 증감이 엇갈려, 항공사별 운항계획 및 계절적 공급 조정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9월 한-대만 노선 운항편수는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월 3,000편 이상의 운항 규모를 유지해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항공 공급 기반은 건조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10월 1일부터 중화항공의 가오슝-인천 노선이 주 7회에서 주 4회로 조정되는 대신 가오슝-김포 노선 운항이 재개될 예정이며, 대한항공의 타이중-인천 노선도 10월 25일부터 운항 재개가 계획되어 있어 향후 지방 출발 노선의 공급 변화가 예상됨. 이에 따라 노선별 운항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만 중·남부 공항을 중심으로 한 방한관광 마케팅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3 향후 전망

○ 방한 대만관광객 최초 200만 돌파, 한국 성장률 연간 1위 확정적

- (통계적 분석) 대만 관광서 아웃바운드 통계 기준, 9월 전체 아웃바운드 인원은 172만 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6.1% 증가, 제1의 목적지인 일본은 59만명으로 18.2% 증가, 2위 목적지 중국은 30만으로 17.6% 증가, 3위 목적지 한국은 20만으로 가장 큰 폭인 34.5% 증가를 보임. 1~9월 누적 통계로 봤을 때 전체 아웃바운드는 16.1%, 일본은 13.2%, 중국은 17.6%, 한국은 34.5% 증가 기록, 한국의 성장세가 가장 커 한국이 일본과 함께 대만 아웃바운드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또 하나의 주목할 점은 1~9월 기간 일본(1위목적지), 중국(2위), 한국(3위) 아웃바운드 통계 비교시, 일본은 1월 39.0% 비중에서 9월 34.3% 비중으로 4.7% 감소, 중국은 16.1%에서 17.8%로 1.7% 증가, 한국은 9.3%에서 11.7%로 2.4% 증가하여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고 한국과 중국이 상응하는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시장환경적 분석) 다만, 10월 들어 11월 대만 지방선거 직전 기관과 개인 해외 출장수요의 감소, 태풍으로 인한 항공편 대량 취소, 평일 국내여행 보조금 지급으로 국내여행 활성화, 대만증시 약세전환 등의 국내 이슈로 한국을 포함한 아웃바운드시장 전반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가 예상되고 있음
- (여행업계 방한상품 현황 분석) 현재 대만 업계는 2027년 설 연휴 상품 적극 판매중. 해당 기간 항공권 가격 10~15% 이상 상승 불구, 여행수요는 지속해서 발생 중이며, 목적지 선호도는 도쿄, 오키나와, 방

국, 서울, 오사카, 홍콩, 후쿠오카, 부산, 삿포로, 상하이 순이며, 오키나와와 부산은 작년 동기 대비 예약 40% 증가로 가장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음(ezTravel 발표). 대만 대표 여행박람회인 ITF 연계 라이온트래블은 한국 단체여행 상품을 NT\$20,000~26,888(한화 82~110만원) 구간으로 출시하고 사전 온라인 행사 기간 내 구매 시 NT\$3,000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 중인데 지난해 대비 한국 상품 중심 예약이 약 30% 증가 상황으로 겨울방학 성수기 및 연말연시의 방한 수요 역시 높은 성장세를 유지 중

⇒ (종합전망) 10월 4주 방한 대만관광객 수는 최초로 200만을 돌파, 일본과 중국에 이은 세 번째 방한관광객 200만 시장으로 기록. 대만 아웃바운드 시장 활황 상황에서 한국은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남은 4분기 중에는 대만 아웃바운드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국내 이슈 발생, 전체 아웃바운드 시장의 성장률은 둔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1~9월 누적 성장률 15.2%)하며, 한국 역시 부분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음. 하지만, 한국은 10월 말 기준 연간 30%대의 월등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있어 분기나 연중으로 성장률 1위 자리를 내어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현재로서는 남은 4분기 중 연간 성장률(한국 통계 기준 32%, 대만 통계 기준 34%) 유지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 한국관광공사 타이베이지사에서는 4분기 중 ‘지방공항 연계 단체상품 특별 지원’ 및 ‘OTA 공동 <2026 중부관광의 해> FIT 프로모션’ 확대 추진 등을 통해 대만 관광객 유치 확대와 나아가 외국인 관광객 2,300만명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3. 타이베이지사 '26.10월 현재 추진 주요사업 및 동향

- 3.1 2026년 하반기 여행업계 모객광고지원 실시(7~12월)
- 3.2 지방공항 연계상품 및 전세기 상품 특별지원 추진(7~12월)
- 3.3 항공업계 협업 방한 항공 프로모션 실시(7~12월)
- 3.4 'K-local 100' 캠페인 추진(중화항공·라이언여행사 협업)
- 3.5 Klook 및 여행사 공동 FIT 여행상품 프로모션 추진
- 3.6 항공사-Pay사-유통사 협업 지방공항 FIT 활성화 통합 마케팅 추진(9~12월)
- 3.7 방한 지방공항 활성화 지역 방문 '찾아가는 코리아플라자' 행사 운영
- 3.8 'Taiwan Only' 대구 떡볶이 페스티벌 상품 모객 지원
- 3.9 방한 대만 관광객 200만 돌파 기념사업 추진
- 3.10 청주공항 연계 전세기 유치 및 판촉지원
- 3.11 대만 방한 교육여행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및 팸투어 추진

※ 언론매체(연합보, 나우뉴스, 휘바오, 자유시보, 중국시보, 휘치, 공상시보, TVBS, 중앙통신사(CNA) 등), 대만 관광서, 대만관광협회, 대만여행업품 질보장협회,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한국항공협회 항공포털 및 업계동향 등 종합. 끝.